

#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지정학적 고찰에 관한 연구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중심으로

김세윤 길림대학교

## 논문 요약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일대일로, 지정학, 지경학, 비판지정학,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 I. 서론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sup>1)</su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sup>2)</sup>이라는 두 개의 수렁을 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남중국해 등지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6일 중국산 첨단기계 및 전자전기제품 수입품목 818개에 대해 340억 달러 상당의 25% 관세를 발효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기도 했다. 또한 10% 이상 고도성장이 6%대로 떨어지자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sup>3)</sup>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라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내수중심의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했고, 미국 중심 일극체제인 국제질서에 대해 다극화를 통한 긴장 완화의 시도가 필요했다(이정태 2017). 이러한 총체적 문제를 돌파하고자 내어놓은 현대판 실크로드 복원사업이 일대일로(一帶一路)<sup>4)</sup>다. 이를 통해 중국의 출구전략인 저우추취(走出去)와 유인전략인 인진라이(引进来)를 모두 실현하고, 대륙국가라는 한계를 넘어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전환함으로써 유라시아

1)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경경제용어사전<https://erms.naver.com/entry.nhn?docId=4394272&cid=42107&categoryId=42107>(최종검색일: 2020/02/12).

2) 중진국의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단계에서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한경경제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695&cid=42107&categoryId=42107>(최종검색일: 2020/02/12).

3) IMF에서 발표한 국가별 2019년 1인당 명목 GDP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10,100달러이다.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최종검색일: 2020/02/12).

4) 일대일로의 성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상(initiative)’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성격의 새로운 계획을 뜻하고, ‘전략(strategy)’이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강한 현실주의적 성격의 것임을 감안한다면, 일대일로는 초기 ‘구상’으로부터 차츰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민 2018).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일대일로’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통합을 지향한다(이정태 2017; 임진희 2015).

세계에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능력이 가장 높은 지역<sup>5)</sup>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처음 시진핑 주석의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의 강연과 동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을 통해 내륙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축과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축의 순서로 제안되었다.

일대일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큰 관심과 기대감이었다. 공간적으로 전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새롭게 부여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다른 하나는 냉담과 우려 내지 회의적 반응이었다(刘宇 2017).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첫째,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부족과 일대일로의 동기에 대해 갖는 주변국들의 의혹과 반발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둘째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문화·종교 등 문명 충돌로 야기될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다른 체제의 국가와의 교류가 자칫 자국 정부의 효율성, 법·제도·규제, 노동력 시장 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는 미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Pivot to Asia)’ 전략의 역제와 포위 등 역외국과 연선대국으로부터 오는 제3자적 위협에 대한 우려다(李曉·李俊久 2015).

일대일로에 대한 기존의 지정학 및 지경학 연구는 대부분 전통적 지정학에 근거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육로와 해로의 구축 전개에 따른 미국 및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 또는 주변 연선국과의 경제협력 등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즉 이는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일대일로에 대한 연

5) 에너지 생산의 경우, 최근 세계 석탄 생산량의 70%, 석유 생산량의 60%, 천연가스 생산량의 50% 이상이 모두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에너지 소비의 경우, 일대일로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에너지 총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다(朱琳 2018).

구 역시 전통적 지정학에 따른 진영에 따라 긍정적 관점 및 부정적 관점의 연구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지정학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비판적 지정학 및 그의 연장선상에서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창안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 Network Theory)을 근거로 일대일로를 분석하여 지정학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일대일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기존 자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일대일로가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보고, 일대일로 전략에 함의된 지정학, 지경학적 및 비판지정학적 코드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저자는 비판지정학 즉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에 따른 '일대일로 3.0 버전'을 제안하며,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반 기술들이 교차, 연계, 융합되어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창출해낼 다자간 국제표준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II. 중국의 일대일로

### 1. 일대일로의 등장 배경 및 전략적 목적

#### 1) 역사적 배경

일대일로의 뿌리는 실로 역사성이 깊은데, 육로인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 One Belt)와 해로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一路, One Road)의 역사적 근원이 각각 다르다. 육상 실크로드는 한무제(漢武帝)가 장건(張騫)을 서역에 파견하여 기본 간선도로를 개척한 데서 유래한다. 그것은 서한(西漢) 도성 장안(長安)<sup>6)</sup>을 시작으로 간쑤(甘肅), 신장(新疆),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지중해 각국에 이르는데, 그 최초의 역할은 중국 고대에서 생산된 비단을 운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Freiherr von Richthofen)이 1877년 그의 저서인 <중국>에서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명명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刘宇 2017).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의 진한(秦汉) 때를 기원으로 두고 있다. 이 해상로는 중국 동남연해로부터 시작하여 남중국해를 관통, 인도양, 페르시아만, 동아프리카 및 유럽에 까지 이르는 사통팔달의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중국과 외국 상업 무역의 대동맥이 되었다. 수당(隋唐) 시절 운송된 대량의 화물 대부분이 비단이어서 이때 사람들이 이 수로를 해상 실크로드라고 부르게 됐다(蔡娟 2015). 그러나 600년 전 명나라 환관 정화(郑和)가 주도한 남중국해~인도양~아프리카에 이르는 바닷길 운영에 힘입어 동아시아지역의 해양강국이었던 중국은 15세기 명말 환관 정화의 정치적 탄압 등의 이유로 남해원정(南航)이 중단되었고, 또한 북방 유목민과 왜구의 침입 때문에 무역상에 대한 해금(海禁) 정책 실시로 인해, 글로벌 패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 퇴보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이상만 2015).

## 2) 전략적 배경 및 목적

일대일로가 가진 전략적 목적은 다분히 복합적이고 다각적이다. 첫째, 국내 과잉공급문제의 해결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 해소 등 내부적 경제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었다. 둘째, 에너지, 원자재, 식량 및 해양자원 확보의 안정성 문제다. 셋째, 중국 중심의 단일 경제블록화 및 위안화 기축통화 기반 마련이다. 넷째, 미국의 일극체제의 패권적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다자주의체제다. 이 네 가지 목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국내 경제 문제인 공급과잉문제를 해

6) 현재의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다.

결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원인이 되는 서부 내륙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연선국과의 물류 인프라 건설을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문희철 2016; 이상만 2015<sup>7)</sup>).

둘째,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가진 중국의 현실<sup>8)</sup>을 감안하여, 일대일로 연선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로 확보가 중요하다(쉬진위·백지운 2016). 중국 원유수입의 80%, 천연가스 50%, 전체 수입의 46%의 수입에 이용되는 경로이자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해상요충지인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과 중국의 39개의 해외항로 중 21개가 통과하며 대외무역선의 60%가 지나가는 중요한 국제항로인 남사군도(南沙群島)는 에너지안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므로, 일대일로의 경로에도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이 안배되어 있다(오일환 2017).

셋째, 일대일로는 참여 국가들 간 자원·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고 자유무역지대를 확산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해 연선국가과의 무역, 위안화의 국제화, 해외 직접투자 확대, 주요 거점지역 간 물류연계 강화 등을 유도함으로써, 위안화 기축통화 및 단일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만 2015<sup>9)</sup>; 오일환 2017; 朴鴻緒 2013<sup>10)</sup>). 일대일로의

- 
- 7) 安宇宏. “一带一路战略”『宏观经济理论』. 2015年 第1期; 杨保筠. “21世纪海上丝绸之路”并非要恢复“华夷秩序”. 『世界知识』 2015; 朱时雨·王玉. “21世纪海上丝绸之路航道安全探析”. 『交通运输研究』第1卷 第2期. 2015.4.; 王元·张换兆, “共同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新格局”. 『东南亚纵横』. 2014.10. (이상만 2015, 58) 재인용.
- 8) 2014년의 경우, 석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66퍼센트, 석유는 18퍼센트, 수력자원은 8퍼센트, 천연가스는 6퍼센트를 차지했고, 이들 에너지 소비의 53퍼센트가 수입에 의존했다(쉬진위·백지운 2016).
- 9) 安宇宏. “一带一路战略”『宏观经济理论』. 2015年第1期; 杨保筠. “21世纪海上丝绸之路”并非要恢复“华夷秩序”. 『世界知识』2015.; 朱时雨·王玉. “21世纪海上丝绸之路航道安全探析”. 『交通运输研究』第1卷 第2期. 2015.4.; 王元·张换兆. “共同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新格局”. 『东南亚纵横』. 2014.10. (이상만 2015, 58) 재인용.
- 10) 韩玉军·王丽. 2015. “‘一带一路’推动人民币国际化进程.” 『国际贸易』. 2015年 第6期., p46-47. (朴鴻緒 2013, 96-97) 재인용.

목적은 내륙과 해양의 실크로드 두 라인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선국가 등에 중국의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각종 국제기금을 통한 인프라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상호 산업을 연결하는 등 국제 경제회랑을 건설하여 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을 건설하는 데에 있다(이창주 2015).

넷째, 일대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외교 및 경제협력 전략으로서 중요한 지정학적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 이에 정책 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무역 확대(贸易畅通), 자금 조달(资金融通), 민심 상통(民心相通)의 5대 핵심 이념 역시 미국의 일극체제에 기반한 대중국 포위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자주의 외교 및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최근 중국학계의 다자주의 외교 추진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지적됐는데, 첫째로는,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국가들과의 다자주의 전략으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응할 필요성의 대두이다. 둘째는, 극단적으로 치달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세계화와 지역화 경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국제경제기구를 활용한 지속적 경제성장 전략이다. 셋째는, 북한 핵 문제, 대만문제, 미일 동맹의 중국 견제 등 불안정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 추구를 위해 다자주의를 취한다는 관점이다(이주형 2016). 일대일로는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와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의 핵심적 포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등을 통한 서방 중심의 세계화 흐름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교섭 등에 의거한 지역주의 중심의 경제협력 흐름, 나아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대표되는 신고립주의 경향 등이 혼재된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김영근 2018), 일대일로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申现杰·肖金

成 2014). 전략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킬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추진하는 미국의 지정학적 시도를 희석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규칙 제정권에 점차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다(이상만 2015).

## 2. 일대일로의 발전 및 확장

### 1)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일대일로

과거 중국의 각 지도자 및 정부에 있어 중화민족의 부흥은 공통된 국가 목표였지만, 구체적 대외전략은 각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마오쩌둥(毛泽东)의 ‘패권을 취하지 않는다(不称霸)’, 덩샤오핑(邓小平)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장쩌민(江泽民)의 ‘유소작위(有所作为)’, 후진타오(胡锦涛)의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거친 중국의 대외전략은 현재 시진핑의 ‘중국몽’에 이르게 됐다(모준영 2017). 해양 전략에 있어서도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는데, 마오쩌둥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주로 군사적 문제였다면, 덩샤오핑의 관심은 해양을 이용한 해외 자본 유입과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에 있었고,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각각 해양 개발과 해양자원 개발을 강조하여 이전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였다(곽수경 2018).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잇는 새로운 버전의 개혁개방의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외자 및 기술을 중국으로 유입토록 했던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에 대해, 일대일로를 통한 개혁개방은 외자의 유출입 및 물자의 쌍방향 이동을 통한 개방으로의 확대, 해상과 육로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등 대외개방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주영 2015). 과거 주로 서구 선진국들에 의지했던 중국의 대외전략이 일대일로를 계기로 주된 협력대상이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으로 교체



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향후 35년간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애경 2016).

## 2) 일대일로의 북극항로 확장

당초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출발했던 일대일로의 범위<sup>11)</sup>는 북극에까지 미치게 되었다.<sup>12)</sup> 북극항로는 일대일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극항로가 일대일로에서 체계상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빙상 실크로드'가 기존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One Road)'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기존의 '일대일로'에 '일도(一道)' 혹은 '일환(一环)'을 추가해 '일대일로일도(一帶一路一道)' 혹은 '일대일로일환(一帶一路一环)'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학자들<sup>13)</sup>도 있으나, 북극항로는 일대일로에서 '일로(一路)'라는 해상경로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북극항로와 육상에서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중-러 협력구간인 '일대(一帶)'의 일부 구간에도 속할 수 있다(송민근 2018, 表娜俐 2018).

---

11) 육상은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연결하는 3개의 노선이고, 해상은 중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2개 노선이다(주용식 2015).

12) 북극항로가 처음에는 '빙상 실크로드(冰上丝绸之路)'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2015년 12월 <북극의 현재와 미래> 포럼과 2017년 5월 중국이 개최한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서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Dmitry Rogozin)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측에 북방 항로와 '일대일로' 연계를 제안함에 따라, 동년 6월 20일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와 국가해양국(SOA: State Oceanic Administration)이 공동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건설의 해상 합작 구상("一帶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에 북극항로 개척이 포함되며 '일대일로'의 일부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다(朱显平·张毅夫 2018; 서현교 2018).

13) 칭화대 후안강(胡鞍钢)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은 북극항로를 별도로 '일도(一道)'로 구분하고 있다(송민근 2018).

### Ⅲ. 이론적 검토

#### 1. 전통적 지정학, 지경학과 그 한계

과연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지정학’은 독일어로 ‘geopolitik’으로 ‘지리(geo-)’와 ‘정치(politik)’의 합성어다. 지정학은 지리적 위치상 관계가 국제 정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sup>14)</sup> 브리태니카 사전(the Encyclopedia Britannica)은 지정학을 “국제 관계에서 권력 관계에 미치는 지리적 영향에 관한 분석(analysis of the geographic influences on power relationships in international relation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지정학이란 용어를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한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에 의하면,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가 결합하여 국가나 사회가 공간에서 유기체처럼 살아 숨 쉬는 존재이고,<sup>16)</sup> 독일의 지정학자 카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의 정의에 따르면 “지정학은 정치지리학에 기초를 둔 제반 정치적 과정의 공간적 결정론에 관한 교리”다(김완규 2018).

이후 지정학은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에 의한 제국주의 팽창에 따라 지리적 공간에 관한 연구를 통한 국가의 패권 및 영토의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적 전략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통적(고전적) 지정학으로 발달했고(홍건식 2019), 같은 맥락으로 미국 국무부장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지정학을 국제정치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의 필요성을 인식 및 강조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의하고, 지정학을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으로 인식하였다(지상현·폴린 플린트 2009).

14) “지정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0%95%ED%95%99> (최종검색일: 2020/02/11).

15) “Geopolitics”,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https://www.britannica.com/topic/geopolitics> (최종검색일: 2020/02/11).

16) 김정운. “한반도의 분단은 아주 오래된 기획이었다”. 『채널에스』 (2008/4/9) <http://ch.yes24.com/Article/View/35713> (최종검색일: 2020/02/11).

전통적 지정학에서 국가의 패권과 해양·대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해양을 중시한 해양세력론을 주장한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은 미국이 강한 해군을 구축하여 해양무역을 통한 해외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을 주장했고(O'Connor, Richard 1969, 248; 김우현 2001, 70; 홍건식 2019, 37), 마한의 해양세력론은 이후 미국의 냉전기 봉쇄전략 및 동북아 개입 등 대외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이정태·은진석 2019). 반면 지정학적으로 심장지역(heartland) 즉 유라시아 대륙을 중시한 영국의 지정학자 해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는 심장지역을 확보하면 세계지배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우현 2001, 80-100; 콜린 플린트 저.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2007, 44-46; 김원수 2014, 131-142; 이정태·은진석 2019, 52). 이들의 지정학 이론은 제국적 혹은 패권적 국가전략 실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마한의 심장지역에 대한 관점은 이후 독일의 나치정권과 지정학자 하우스호퍼 등으로 이어져 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거나 소련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정당화에도 활용되었다(이정태·은진석 2019).

지경학이란 무엇일까? '지경학'은 영어로 'geoeconomics'로 '지리(geo-)'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다. 지경학은 경제 및 자원의 공간적·시간적·정치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sup>17)</sup> '지경학'이란 지정학 개념이 원용된 것으로, 지리적인 환경이 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정치·군사·사회·문화적인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는 경제학의 범주에 정치학, 지리학, 지질학, 군사학, 역사학, 문화학, 철학 등 융·복합적 및 중층적 구조 관점에서의 경제 마찰 및 협력의 체제까지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본다(김영근 2018).

17) "지경학".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Geoeconomics> (최종 검색일: 2020/02/11).

##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가능성

비판지정학은 전통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통적 지정학은 국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된다는 비판이다(홍건식 2019, 35; Ó Tuathail, Gearóid. and John Agnew 1992, 190-204). 전통적 지정학이 국제정치를 이해함에 있어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해왔으나, 때로는 이론이 아닌 국가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권력의 시너로 기능하여 왔다는 비판이다(이정태·은진석 2019, 51; 콜린 플린트 저.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2007, 137-171). 둘째는, 전통적 지정학은 영토성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과잉담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김숙진, 2010). 즉 전통적 지정학 연구들은 영토를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한 물질적 제약에 갇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물질성을 가진 국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Hull, George 2013, 49-77; 이정태·은진석 2019, 60). 셋째는, 전통적 지정학의 국가 중심적인 공간 인식만으로는 역동적인 국제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 국가 외에도 공동체, 지역, 지방, 도시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공간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대희 2017).

따라서 비판지정학은 과거 영토와 국가에 집중되어 국가 간 패권적 국가전략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되었던 전통 지정학의 담론 대상과 영역을 ‘탈국가’ 및 ‘탈영토’ 과정을 통한 확장을 시도함에 따라, 국가 외에도 국가들로 구성되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지정학자 콜린 플린트(Colin Flint)도 자신이 생각하는 지정학은 국가와 국가의 경쟁을 넘어선 다양한 상황 하에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적 지정학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보았다(콜린 플린트 2008). 이렇게 탈영토적 영역까지 확장된 지정학적 담론의 범위가 물

질과 관념, 행위자와 구조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르자, 사회 및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수단이 제기된 바, 이 이론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다(김숙진 2010).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1980-1990년대 브뤼노 라투르,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 등에 의하여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위한 틀로서 제시되었다(김상태·김남조 2018). 이에 따르면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 간에 발생하는 동맹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정치이고, 그 동맹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과학적·정치적 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은 인간 뿐 아니라 비인간(자연)에게도 인간과 같은 행위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브루노 라투어. 황희숙 역 2016, 500-506; 브루노 라투어. 홍철기 역 2009, 343-358; 이정태·은진석 2019 재인용),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이룬다(김숙진 2010). 단순히 영토와 경계를 지닌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전통적 영토 및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실질적 상호작용이 야기하는 결과가 국가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탈국가적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진다(이정태·은진석 2019).

지정학 담론이 갖는 근원적 한계의 해결책을 바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인 브뤼노 라투르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제한되어 있던 전통적 사회학의 범위를 인간과 비인간 간의 이질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켰고(김환석 2009),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학 외에도 생태학, 지리학, 정보통신분야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최병두 2015).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물들 자체(things in themselves)'와 '인간들 자체(humans among themselves)'의 경계와 그것들을 각기 연구하는 자연과학과 사회학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Latour B. 1993: 김환석 2009, 876). 또한 존 로는 이 이론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을 네트워크 속에 대등한 주체로 포함시킬 때만이 사회를 정확히 이해 및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병두 2015). 따라서 일대일로라는 국제적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실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정치현상을 국제정치학 내지 지정학 관점에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 IV.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일대일로

##### 1.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일대일로

###### 1) 미중 패권 경쟁에 차용된 지정학적 플랫폼

우선 중국이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영토의 대부분은 매킨더가 말한 세계의 심장부인 ‘대륙의 심장지역(the Heartland of the Continent)’ 또는 ‘중추지역(pivot area)’에 해당되지 않고, 심장지역 주변을 둘러싼 ‘내부 초승달 지대(inner crescent)’ 혹은 몬순 연안지대에 해당한다(Mackinder, Harold J. 1904, 435-436; 김학노 2019 재인용). 니콜라스 스파이크맨(Nicholas J. Spykman)도 중국을 대륙 심장지역의 주위에 있는 ‘주변 지대(Rimland)’로 분류했다(Spykman, Nicholas John 1969, 40-41; 김학노 2019 재인용). 따라서 중국은 단순한 대륙세력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륙의 심장지역과 해양 사이에 위치한 중간지대, 넓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심장부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양쪽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지정학적 특징이 있다(Mackinder, Harold J. 1904, 436-437; 김학노 2019 재인용). 따라서 일대일로가 단순히 내륙과 해양의 두 실�크로드 루트를 연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으로서 해륙 복합형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창주 2015).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대일로를 분석할 경우, 우선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과 이에 대한 지정학적 대응전략인 일대일로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미국이 중국에 대

해 가진 지정학적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펼친 지정학 전략으로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New Silk Road Initiative)'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있다.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에 따라 우려되는 테러를 방지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이어지는 교통운송로와 경제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정학·지경학적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 전 국무장관이 2011년 제안하여 미국의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미국이 2010년 발표한 대아시아정책으로서, 미국의 전진 배치외교를 강조했다(김애경 2016). 미국의 두 전략 모두 중국의 지정학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유라시아 내륙으로의 서진(西進)을 억제하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인도양·태평양 등 바닷길을 통한 해양진출을 억제함에 그 전략적 목적이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패권 유지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근거에는 지정학적 판단이 있다. 중국이 중국몽 실현 전략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자 미국의 전략가들은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의 예언대로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 세계질서를 타파하고 중화질서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Indo-Pacific Initiative)<sup>18)</sup>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김완규 2018).

다음으로 이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으로서의 일대일로를 살펴 보겠다. 사실 중국의 해양대국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은 이미 1980년 당시 중국 해군 사령관 류화칭(刘华清)에 의해 제시가 된 바 있다. 즉 해양 방위선에 대해 2000년 초반까지는 근해 방어를 위주로 하고(제1

18)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인도·호주·아세안(ASEAN)국가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여 '단일의 통합된 지정학적 틀'을 건설하여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거대 하고 통합된 대륙세력 등장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도련선), 2020년까지는 괌 공군 기지와 오키나와(沖縄)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의 전진방어를 구축하며, 2050년까지 진출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대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한다는 마스터플랜이다(이상만 2015). 그러나 중국은 미일동맹의 전략적 압력과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된 이후,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동북, 동남 지역에서의 군사적 정면충돌을 회피하면서 갈등과 충돌 요인인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세력기반을 마련해 감으로써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에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다(王輯思 2012; 하도형 2019, 예쓰청 저. 이우재 역 2005; 김애경 2016, 134).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충돌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남중국해의 ‘진주목걸이 전략(SOPS: String of Pearl)’<sup>19)</sup>, 미군에 의해 장악된 말라카 해협에 대한 과도한 해상수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남미 카리브해(Caribbean Sea)의 니카라과(Nicaragua)에 과감한 투자와 태국과 2015년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크라 운하, 인도차이나반도(Indochina Peninsula)에서 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의 ‘동서(东西)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한 일본의 전략에 대응한 윈난-태국-말레이시아를 가로지르는 ‘남북(南北) 경제회랑’ 건설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가 전통적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적지 않다. 경제적 협력 및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내 갈등 완화 및 지역 공동 발전의 실현을 도모한다(刘宇 2019).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신형대국관계가 군사 및 안보패러다임과 이를 뒷받침하던 이데올로기를 시장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상호 이익은 함께 커지게 때문에 그 전략적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이다(이정태 2017).

19)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주변 국가와 정치적·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2)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경학적 플랫폼

일대일로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실크로드와 관련된 물류네트워크는 고대에서 현재까지 경제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세계 패권을 확장·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유라시아에 대한 과거의 지위 재건을 꿈꾸는 러시아 등 심장부지역을 둘러싼 물류네트워크 경쟁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김태만 2015, 28-29) 재인용)<sup>20</sup>.

지경학적 관점에서 일대일로의 목적은, 전통적인 지역경제 협력 모델을 뛰어넘어, 복합적, 공리적, 개방적 교류 및 협력 방식을 통해, 육상과 해상 물류망을 각 지역별 주요 국가들을 연계하여 각 국가는 지리적 이점, 분야, 방식을 고려 및 선택하여 협력과 상생을 통합함으로써 유라시아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朴英愛·张林国 2016; 주용식 2015). 이를 통해 중국은 오랜 숙원이었던 출구전략 및 유인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이정태 2017). 일대일로는 이러한 운송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인프라 구축은 물론 위안화 기축통화 전략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국 국내경제의 재도약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지경학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주용식 2015).

## 2. 비판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일대일로

### 1) 행위자-네트워크(ANT) 이론적 관점에서의 일대일로

브뤼노 라투르와 미셸 칼롱은 행위자와 연결망은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여, 행위자는 연결망 없이 행위를 할 수 없고, 동시에 연결망은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Callon, M. & Latour, B. 1981, 286; 김환석 2009, 879 재인용).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기타 주체들이 참여

20) 포럼지식공감 조찬포럼 발표된 원동욱의 PPT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유라시아를 향한 그랜드 디자인>(2015/5/14, 부산).

하는 연결망으로서의 일대일로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분석대상으로 살펴보겠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가 일대일로에 참가하여 협력하는 행위를 역내 국가 대 국간 간 행위로 제한하여 보기 보다는 비국가 행위자인 일대일로라는 플랫폼과 이에 참가하는 다양한 주체 간에 형성되는 유기적 네트워크 공간 상 이뤄지는 행위로 확장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조의 개방성이 중요하다(쉬진위·백지운 2016).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후자성(胡佳胜) 소장은 일대일로의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일대일로가 과거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막대한 원조로 서유럽 일대에 인프라를 제공하며 세계를 양대 진영을 가른 마셜플랜(Marshall Plan)과는 달리 협력국들과의 협력과 공생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임진희 2015). 한편 서방 중심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지역통합의 경쟁 국가인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경계가 명확한 배타적 공간을 가진 지역통합인 반해 일대일로는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통합을 강조한다고 본다(김영진 2019, 197; 최재덕 2019, 12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일대일로 협력의 범위는 단순히 인프라 건설에 의한 육상, 해상, 항공 등 운송 통로 증설에 머물지 않고, 무역 촉진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인터넷 정보화 구축, 역내 전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역 구조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 개선 유도에까지 미친다(刘宇 2019). 현재 일대일로의 연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세안(ASEAN) 연계성 마스터 플랜(AMPC: ASEAN Master Plan for Connectivity)에 의한 연결성 구축의 범위를 보면, 도로, 전력 등 물리적 연계성(physical connectivity) 뿐만 아니라, 상업 및 투자 자유화 등 제도적 연계성(institutional connectivity), 나아가 문화관광 및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구성원들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인적 연계성(people-to-people connectivity)까지 포함하는 등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및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에까지 확대된다(주용식 2015).

## 2) 일대일로에 의한 기술표준화 전략

냉전 이후, 인터넷 기술의 보급과 고속 철도의 발전은 대륙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경제 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극적으로 압축하고 확장하였으며, 중국이 중륙경해(重陆轻海-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를 특징으로 하는 육해이원화 전략에서 육해병중(陆海并重-육지와 해양을 모두 중시)을 핵심으로 하는 육해통합전략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강력한 바탕이 되었다(李晓·李俊久 2015).

일대일로 전략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보면, 일대일로 1.0 버전이 교량, 댐, 항만건설 등의 '점'을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의 '선'으로 연결했다고 보면, 일대일로 2.0 버전은 '면'으로 접근하여 중국 중심의 경제블록인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구축하는 '면'으로 영역적 확장을 이루는 단계로 볼 수 있다(최재덕 2019).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에 따라 지정학의 범위와 대상이 지리적 영토를 벗어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본다면, 다음 단계의 일대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에 관한 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및 통합 단계로 보아, 점, 선, 면을 넘어 '입체'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교차·연계될 인터넷 통신 환경까지 지정학적 영역이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일대일로의 단계로서, 저자는 이를 임의로 '일대일로 3.0 버전'이라 명명해 보고자 한다.

<표 1> 버전에 따른 일대일로

구분		지정학적 확장 영역	연계성	지정학적 근거이론	지정학적 기본요소
버전	단위				
1.0	선	교량, 댐, 항만 건설 등을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의 '선'으로 연결	물리적 연계성	전통적 지정학·지경학	국가·영토
2.0	면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블록인 '면'으로 영역적 확장 연결	제도적·인적 연계성	(과도기)	(과도기)
3.0	입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으로 확장 연결	기술적 연계성	비판적 지정학: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탈영토·탈국가, 다층적 행위자간 상호작용

출처: 본문의 내용을 필자가 표로 정리함.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에 표준화 국제화 전략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중국은 2015년 12월 중국의 관리시스템 및 관리능력을 현대화하고 표준화 시스템 완비를 통해 표준의 유효성, 선진성, 활용성을 강화하면서, 중국 표준의 국제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무원은 “국가 표준화시스템 발전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였다. 국가 표준화 시스템 발전계획의 6가지 방안 중 국제표준화작업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표준화 국제협작 심화’는 일대일로 전략에 표준화를 적극 활용하고, 연선 국가 간 정책과 시설을 연계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화 국제협작 심화’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타국과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에서의 협력 및 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북아시아 등 지역 및 브릭스 국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표준화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 또한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및 13·5 계획(2016-2020년)에서 기술수출을 위해 국제표준화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이 이 기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10가지 표준화 프

로젝트 중 하나의 중국표준의 '저우추취' 프로젝트의 영역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선박 등이 포함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지운 2018).

## V. 결론

중국의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역사의 맥락과 함께 신흥 패권강국으로서 유라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을 두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학계의 지정학·지경학 전략의 역사 고찰에 근거한 분석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지정학 및 지경학을 아우르는 대전략으로, 현실적으로 중국이 주류 세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직면한 복잡한 국내외 갈등과 곤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분명히 하고, 대국굴기(大國崛起)의 관점에서는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정학·지경학의 '전략적 재건'임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李曉·李俊久 2015).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강력한 해양강국으로 거듭나 유라시아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해양지역까지 아우르는 중화문명권인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요인들이 있다. 일대일로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의 전선으로 인식되면서, 남중국해, 한반도 등지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지정학적 긴장과 불안 요인을 주고 있고, 비판적 지정학 관점에서도 무역 분야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김완규 2018). 아세안(ASEAN)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합균형(complex balancing) 현상<sup>21)</sup>이라든지, 일본의 안보다이아몬드나 인도의 경제몬순항로 전략 역시 지정학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임진희 2015).

21) 아세안(ASEAN)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 강대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도권이나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도록 다자간 지역협의체에 강대국들을 참여시켜 그들 간의 세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가 '아세안(ASEAN)판 복합균형'이라고 한다(주용식 2015).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라시아 경제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며 새로운 세계경제 및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판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 지정학적 구조로 인하여 역내 국가들이 갖게 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와 우려로 인해 추구되는 복합균형에 대한 욕구를 심분 이해하고 이를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소로 적극 편입해야 한다. 즉 역내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지경학적 전략과 함께 특정 강대국의 전횡이 제어될 수 있도록 다자간 상호의존성을 높여 이들 협력에 의한 복합균형을 유지하여 지정학적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

과거 지정학의 중요성이 미국인들에게 미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가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심어주는데 있었다고 본다면(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비판지정학에 따른 중국의 일대일로는 더 많은 국가와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여 협력하고 상생하는 수평적 유기적 네트워크로서 발전해갈 여지가 많다. 특히 ‘점’, ‘선’을 거쳐 ‘면’의 단계까지 진화한 현재의 일대일로가 이를 넘어 ‘입체’의 단계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반 기술들이 교차, 연계, 융합되어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창출해낼 다자간 국제표준화 플랫폼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로써 미중 패권 경쟁 각축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의 추진으로 인해 야기될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부분에서 작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비판지정학으로 분류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부족이다. 둘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경제학에 적용시키기 위한 이론적 고찰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셋째, 비판적 지정학 내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적용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일대일로 관련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수경. 2018.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과 중화주의 - 도서 분쟁과 해양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3-57.
- 김상태·김남조. 2018.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관광분야 공유 경제 플랫폼의 성장과정 분석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제42권 제3호(통권 159호), 163-183.
- 김속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5(4), 461-477.
- 김애경. 2016.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 - 제기배경, 추진현황, 합의 고찰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년 상반기(통권 29호), 112-144.
- 김영근. 2018. “세계무역구조의 변용과 지경학: 글로벌화 vs. 지역주의.” 『한일경상논집』 제79권, 93-113.
- 김영진. 2019. “유라시아의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일대일로(BRI).” 『슬라브학보』 34(1), 197
- 김완규. 2018.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미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원수. 2014. “해퍼드 J. 맥킨더와 영국외교정책의 지정학.” 『사회과교육』 제 53집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
- 김우현. 2001. 『세계정치질서』. 파주: 한울.
- 김태만. 2015. “시진핑(習近平)의 문화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문화전략.” 『동북아문화연구』 제44집, 19-39.
- 김학노. 2019.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2), 5-30.
- 김환석. 2009. “행위자-연결망이론과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73-886.
- 모준영. 2017. “중국이 해양을 통해 추구하는 강대국 상(像: 지역 강대국인가 세계적 강대국인가.” 『중국지식네트워크』, 83-115.
- 문희철. 2016.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경쟁과 협력.” 『전자무역연구』 제14권 제1호, 69-94.
- 박영민. 2018. “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집 3호, 69-87.
- 朴鴻緒. 2013. “중미관계와 ‘일대일로’의 정치경제: 달려패권에 대한 취약성 극복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8집 2호, 73-110.
- 브루노 라투어 저. 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 브루노 라투어 저. 황희숙 역. 2016. 『젊은 과학의 전선 테크노사이언스 와 행위자 연결망의 구축』. 서울: 아카넷.
- 송민근. 2018. “중국의 북극항로 개발사업. 일도(一道)의 특징과 시사점.”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103-115.
- 서현교. 2018.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22:1, 119-152.

- 쉬진위·백지운. 2016. “중국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경제학.” 『창작과 비평』 44(3), 476-493.
- 예쓰청 저. 이우재 역. 2005.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 오일환. 2017. “‘일대일로’구상과 중국경제의 국제화 주도 연구.” 『한중미래연구』 제6호. 135-154.
- 원동욱. 2015.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유라시아를 향한 그랜드 디자인.” 『포럼지식공감』 조찬포럼 발표 PPT.
- 최우. 2017. “关于“一带一路”背景下中韩经贸合作研究.” 『동북아문화연구』 제53집, 237-253.
- 최우. 2019. “동북아 지역의 일대일로 참여 필요성 및 우선 과제.” 『아시아연구』 22(2), 101-124.
- 이대희. 2017. “정치학의 공간적 접근을 위한 시론적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7(3), p119-137.
- 이상만. 2015. “一帶一路 - 海洋실크로드의 政治经济的 含义.” 『中国地域研究』 第2卷 第1号. 47-96.
- 이정태. 2017.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집』 25집 1호, 207-236.
- 이정태·은진석. 2019. “전통적 지정학의 영토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7집 2호, 47-76.
- 이주영. 2015.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경제협력전략에 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37호), 85-103.
- 이주형. 2016.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와 일대일로 전략.” 『대한정치학회보』 24집 1호, 131-150.
- 이지윤. 2018. “중국 5G 산업의 국제정치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주. 2015.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바로알기.” 『시선집중 GSIn』 (204), 1-13.
- 임진희. 2015.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신외교전략의 시발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호, 1-21.
- 朱琳. 2018.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용식. 2015.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전망 분석: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Vol. 18. Issue 2, 169-190.
- “지경학”.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Geo-economics> (최종 검색일: 2020/02/11).
- 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 『공간과 사회』 31, 160-199.
- 최병두. 2015.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53, 125-172.
- 表娜俐. 2018. “중국의 북극 진출 정책과 일대일로 ‘빙상 실크로드’ 전략의 내용 및 함의.” 『중소연구』 Vol. 42 No. 2, 149-189.
- 콜린 플린트. 2008.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1-351.
- 하도형. 2019. “중국 해양전략의 양면성과 공세성: 국가정책적 추진 목표 및 방식과 현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5(4). 2015.12, 75-104.



- 홍건식. 2019. “비판지정학과 공간의 정치.” 『문화와 정치』 6(1), 33-60.
- Callon, M. & Latour, B. 1981.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 Help Them To Do So". K. Knorr-Cetina & A. Cicouvel. eds.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s an Integration of Micro and Macro-Sociology*. Boston, MA; London: Routledge.
- Hull, George. 2013. "Reification and Social Criticism." *Philosophical Papers*. Vol.42. No.1.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kinder, Harold J.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23(4): 421-444.
- O'Connor, Richard. 1969. "Pacific Destiny: An Informal History of the U.S. in the Far East." Boston: Little Brown.
- Ó Tuathail, Gear ó id, and John Agnew. 1992. "Geopolitics and Discourse: Practical Geopolitical Reasoning in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Geography* 11(2): 190-204.
- Spykman, Nicholas John. 1969. "The Geography of the Peace." Edited by Helen R. Nicholl. [S.I.]: Archon Books.
- 朴英爱·张林国. 2016. “中国“一带一路”与 韩国“欧亚倡议”的战略对接探析.” 东北亚论坛, 第1期 总第123期 No.1, Total No.123.
- 申现杰·肖金成. 2014. “国际区域经济合作新形势与我国“一带一路”合作战略.” 『宏观经济研究』. 第11期. 30-38.
- 安宇宏. 2015. “一带一路战略.” 『宏观经济理论』. 2015年第1期.
- 杨保筠. 2015. “21世纪海上丝绸之路”并非要恢复“华夷秩序”. 『世界知识』.
- 王元·张换兆. 2014. “共同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新格局.” 『东南亚纵横』. 10.
- 李晓·李俊久. 2015. “‘一带一路’与中国地缘政治经济战略的重构.” 『世界经济与政治』. 第10期. 30-157.
- 朱时雨·王玉. 2015. “21世纪海上丝绸之路航道安全探析.” 『交通运输研究』 第1卷 第2期.
- 朱显平·张毅夫. 2018. “贯彻十九大精神打造“冰上丝绸之路”中, 探索打造军民融合特色智蔡娟. 2015. “走中国特色海洋强国之路托起中国梦.” 『理论月刊』. 5-10.
- 王輯思. 2012. ““西進”, 中國地緣戰略的再平衡.” 環球時報.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JxoLS>(최종검색일: 2020/03/31).
- 韩玉军·王丽. 2015. ““一带一路”推动人民币国际化进程.” 『国际贸易』. 第6期. 46-47.

투고일 : 2020년 2월 27일 . 심사일 : 2020년 3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4월 1일

\* 김세운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법학석사로 현재 중국 길림대학교(Jilin University) 동북아연구원에서 세계경제로 박사과정 중, 중국 길림사범대학교(吉林师范大学, Jilin Normal University) 한국어학과 외국인전임강사(2016.9~현재)로 재직하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Critical Geographical Consideration of 'One belt, one road' : Overcoming Territoriality by Actors-Network Theory(ANT)'s Perspective**

Kim, Se Yoon  
(Jilin University)

China which faced with "Thucydides Trap" and "Middle Incoming Trap" has presented "One belt, one road" strategy based on geopolitics to break through these.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ecting a newly added era, advancement, and reform as the cooperation space on traditional Silk Road is expanded and deepened, while 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geopolitical tensions. This study looked at how "One belt, one road" emerged and changed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China's national external strategy, and analyzed based on the theories of traditional geopolitics, geoeconomics and critical geopolitics. Meanwhile, with regard to dichotomic perspective to "One belt, one road" due to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nationalism the territorialism of traditional geopolitics, take note of the desertionism and denationalism that have been emphasized by critical geopolitics, at the same time, it deals with the concept of actor-network theory (ANT) that has recently been studied in various areas as well as sociology. According to the Actor-Network Theory (ANT), which deals with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nature) actors, it suggests that 'One belt, one road' will evolve into 'One belt, one road version 3.0' that could be expanded to technical standards that will be interconnected 'in three dimensions' core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is expected to reduce the risk of geopolitical conflicts, while shifting 'One belt, one road' to an advanced platform for good-will competition to preempt high-tech hegemony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human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s** : One belf one road, geopolitics, geoeconomics, critical geopolitics, Actor-Network theory (ANT)